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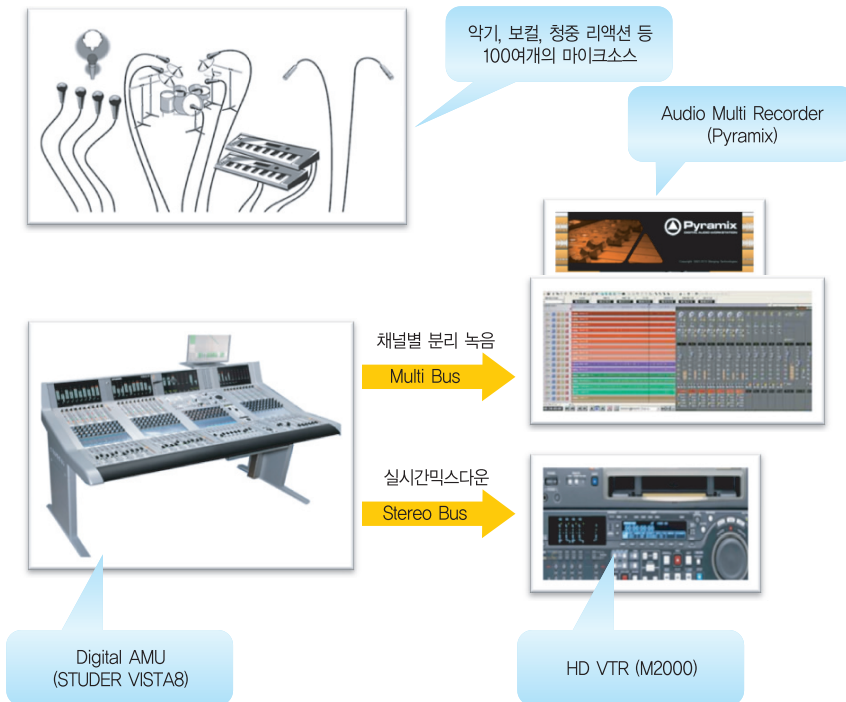
+ 이영근 · MBC제작기술부

BROADCAST BULLETIN

나는가수다

방송 음향 제작

'나는 가수다'는 가수와 세션들이 전 곡을 라이브로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현악기, 관악기, 리듬악기, 타악기 등의 악단과 보컬, 청중 리액션의 소리를 각각 분리하여 수음하는데 대략 100개 남짓의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분리된 음원 소스들을 Audio Mixing Console의 Channel에 수용하여 녹화 중에 실시간으로 믹스다운하며 VTR에 Recording 합니다. 또한, 판매용과 방송용 음원 제작을 위하여 Audio Multi Recorder (Pyramix)에 채널별로 분리하여 Recording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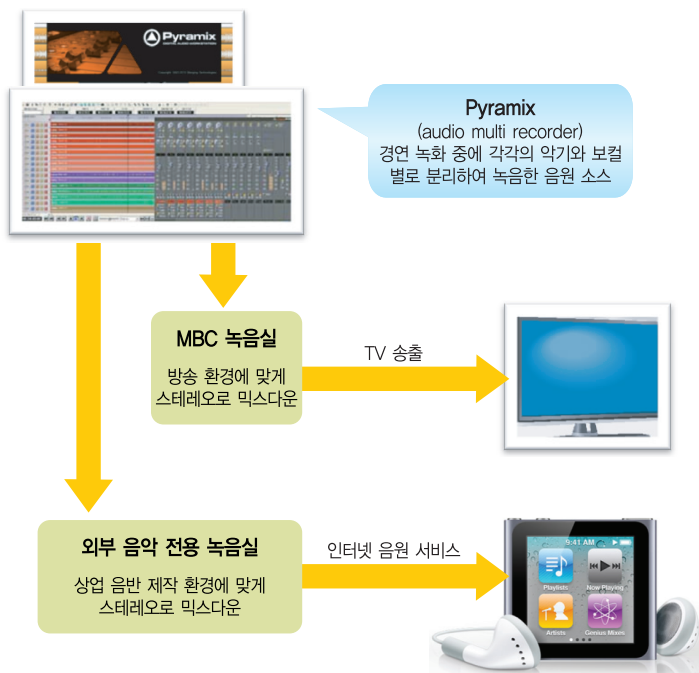
녹화 중에 실시간으로 믹스다운할 때에는 마이크 상호 간의 간섭이나 노이즈 등 불필요한 소리들과 돌발 상황들이 많고 세심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화 이후에 가수와 편곡자, 음악 감독 등과 함께 협의를 하며, MBC 녹음실에서 정교하게 다시 믹스다운하여 방송용 음원을 제작합니다.

(※믹스다운 : 여러 개의 채널로 분리되어 있는 악기나 보컬의 음색과 밸런스 등을 맞추고 이펙트 처리 및 가공하여 스테레오 음원으로 만드는 일)



〈MBC 드림센터 녹음실〉

TV 방송용 음원과 판매용 음원의 음향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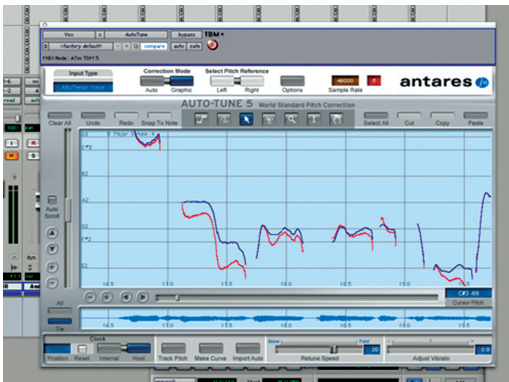
“나가수는 TV에서 듣는 음향이랑 다운로드 받은 음원의 음향이랑 왜 소리가 달라?”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의 음향을 담당하다 보니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좌측의 그림처럼, 경연 녹화 중에 각각의 악기와 보컬별로 분리해 녹음된 멀티 녹음 소스를 이용하여 방송용과 판매용 음원을 따로 믹스다운하기 때문에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토튠(Auto-Tune)’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개그맨이자 가수인 박명수씨가 농담처럼 자기 노래는 기계가 다 뽑아 준다고 하죠. 그 기계가 바로 ‘오토튠’입니다. 오토튠은 미국 ‘안타레스(Antares)’사가 1997년 개발한 음조(音調) 보정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노래나 악기 연주에서 음계를 벗어난 음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기계음처럼 변화시켜 주는 데 사용됩니다.



소리의 포토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위주의 대중음악은 대부분 아주 적극적으로 오토튠을 사용합니다. 라이브와 CD의 보컬을 비교해서 들어 보면 오토튠의 엄청난 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어지간하면 노래를 다 잘 부르는 것처럼 만들고 때론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주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국내외에 오토튠의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방송 초기부터 오토튠의 사용 여부에 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수나 연주자로서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싶어 하니까요. ‘나는 가수다’가 여타의 음악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서바이벌 경연이라는 점입니다.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들의 진심이 시청자를 움직인 거죠. 정확한 음정, 박자와 기술적인 화려한 기교도 중요하지만 경연이기 때문에 청중 평가단이 현장에서 듣고 판단한 가수들의 공연을 시청자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으로 방송에서는 오토튠을 사용하지 않고, 풍부하고 화려하지만 왜곡 없이 자연스러운 음향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작하는 판매용 음원의 경우, 오토튠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가수나 악기의 틀린 음정을 바로 잡아 주고 때로는 재녹음을 하면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소스를 가공하여 믹스다운을 합니다. 음악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경연 당시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과는 다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송용과 판매용 음원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방송은 경연 녹화 현장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고, 판매용 음원은 일반 상업 음반과 동일한 목적에서 제작되는 것입니다.

편집 동영상 서비스의 음향



HD VTR

경연 녹화 중에 실시간으로 믹스다운한 스테레오 음원

‘나는 가수다 무편집 동영상’은 영상과 음향의 후반 보정 작업 없이 무편집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에서 서비스되는 동영상입니다. 경연 당시에 실시간으로 HD VTR에 녹화한 영상과 음향(스테레오로 믹스다운한 음원)을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화 이후에 멀티 녹음 소스를 이용하여 다시 믹스다운한 방송용 음원과는 소리가 다릅니다.

TV로 나가수 음향 제대로 즐기기

외국의 한 방송사의 실험에서 채널 간의 음향 레벨 편차, 한 채널 내에서 프로그램마다 음향 레벨 편차, 심지어 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음향 레벨 편차가 심하면 시청자의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음향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사마다 자사 채널의 음향 레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한다는 점이지요. 특히 홈쇼핑과 같은 케이블 TV의 음향 레벨 경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TV의 채널을 돌려 보면 지상파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채널의 평균 음향 레벨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는 불만을 느끼기 되고, 그 불만을 TV를 제작하는 가전사에 토로합니다. 결국, 가전사는 아주 강력한 음향 압축 기술을 TV의 기본 세팅으로 넣게 됩니다.

이름하여 ‘자동음량’!!!

엄청난 음향 압축 능력으로 큰소리는 답답하게 눌러 주고, 작은 소리는 엄청나게 키워 줍니다. 그 동작들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본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설정을 일부러 바꾸기 전에는 자동음량 기능이 항상 동작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음량 기능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나, 음악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악의 다이내믹을 없애며, 밸런스를 무너트려 심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 TV의 자동음량 기능을 끄는 것이 음악 위주 프로그램의 음향에 훨씬 긍정적입니다. 대부분의 TV는 메뉴 설정의 음향 항목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음악 모드를 설정하면 중저음이 강조되어 현장감 있게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밸런스가 무너져 왜곡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악 모드의 선택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만, MBC 음향팀에서는 음악 모드가 아닌 표준 모드를 권장합니다.

